

독도(獨島), 홀로섬인지, 돌섬인지 알 길 없지만 무릉도(武陵島) 삼봉도(三峯島) 자산도(子山島) 간산도(干山島) 등의 이름들로 불리고, 일본에서 부르는 이름도 있으니 그다지 외로운 느낌은 안 든다.

21세기는 해양의 세기이다. 1994년 이후에는 바다도 영토개념이 적용되었다. 더구나 해양에서는 그동안 소외됐던 막대한 자원들이 발견되고 있어, 꼭 석유만이 아니라도 새로운 부의 원천이 되고 있다. 물에서도 한 치의 땅을 더 차지할까 싶어 때로는 살육전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이제 바다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던 말인가?

그래서인지 동아시아중해의 해역에서는 EEZ(배타적 경제수역), 어업지선기선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지고, 센카쿠(釣魚島)제도, 북방 4개 도서, 시사(西沙)군도 난사(南沙)군도 등에서 해양 영토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물론 독도는 우리 영토이므로 분쟁지역은 아니다. 다만 일본이 분쟁지역으로 만들고자하는 1단계 전략의 말미잘 가능성이 깊어질 뿐이다. 일본은 세계 5위의 해양 영토대국이 되었고, 중국과 더불어 해군력을 증강시키면서 '남해대전(南海大戰)'이라는 가상 시나리오가 유포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한편 인천 부산 코오베 상하이 선전 등이 동아시아의 물류거점으로 부상하기 위해 사활 건 경쟁을 벌인다.



**불자 세상보기**

문 명 철  
동국대 역사학 교수

**독도에서 들리는 목탁소리**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해양을 놓고 경쟁과 협력의 있어왔다. 지중해적인 성격을 지닌 동아시아에서는 해양력을 강화시켜야 국가가 발전할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억압받지 않았다. 특히 동아시아중해의 중핵에 위치한 우리는 해양력을 강화시키고 국가발전의 주요정책으로 삼았을 때 발전했고,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주도했다. 전성기의 고구려 백제가 그러했고, 통일신라시대의 장보고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발해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해상성국을 이루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송나라와 교류할 때의 고려시

대는 해상무역의 눈부신 전성기였다. 동해는 우리가 일본열도로 진출하고 교류하는데 활용된 터였으며, 그 가운데에 울릉도와 독도가 있었다. 이미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동해 북부나 연해주해역을 출항하여 동해를 항해하거나 일본열도로 건너갈 때 울릉도 독도는 사용되었다. 신라는 '연오랑 세오녀 설화'에서 보이듯 동해남부의 포항 울산 감포 등의 항구를 출항해서 혼슈남단의 시마네현 돗토리현 등에 도착했다. 그때 항법상으로 보아 울릉도 독도를 최대한 활용해야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구려나 발

해 또한 마찬가지로 동해중부나 북부의 해안에서 출항하면 망망대해 가운데의 울릉도와 독도를 중간거점 또는 항해상의 표표로 삼아 일본열도의 후쿠이(福井현, 이시가와(石川현 등의 해안에 상륙했다. 이뿐 아니라 훗날에는 여진 해적들이 울릉도에 침범하였고, 대마도나 일본어부들도 때때로 잠깐씩 피항했었다.

그러나 이 모자(母子)섬은 역사 이래 늘 망망한 대해에서 배깅을 안내해주는 등대요, 파도와 추위에 지친 항해자들을 품어주고 먹여주는 피난처이며,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모험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꿈의 섬이었다. 다만 조선시대의 한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졌고, 주인에게 버림받은 외로운 독도(獨島)가 되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21세기 세계화(globalization)가 비자발적으로 강요되고, 동아시아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면서 주도권 쟁탈이 본격화되고, 그 중심에 일본이 있다. 일찍부터 해양의 중요성을 절감한 그들은 이미 16세기에 동남아시아에 진출했고, 19세기 말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해전에서 격파한 후에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독도에 관한 권한을 빼앗으면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다. 그렇다면 지금 '독도문제'의 본질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 독도는 또 한 번 우리 역사에서 시금석이 되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벌어대는 왜색의 남동풍에 휘둘리는 독도에서 역사의 목탁 소리를 들어 본다.

**불자의 눈**

**아사자 속출 북한에 자비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소식이다. 작년과 재작년 연이은 자연재해로 곡물 수확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의 보고서는 작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300만 톤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수확량인 370만 톤 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이 같은 자료를 통해 우리는 북한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얼마나 심각하게 봉착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실제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탈북자는 날마다 아사자가 속출하는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하기도 했다. 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한 매체에서 현재의 북한 아사자 속출 상황을 전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수시로 침범하는 등 대남 압박을 하고 있다. 그 속사정이야 뭐가 됐든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인해 불교계의 대북 교류 사업이 원활하지 않은 점은 문제다. 굶주림에 죽어가는 동포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활발한 인도적 교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죄악에 관조하는 기분이 것이다.

서울 봉은사 신도회의 경우 5월 23일 통일문제연구소(소장 백기완)에 1000만 원의 북녘동포돕기 쌀 지원금을 전달했다. 불자다운 아름다운 불사다. 그간 불교계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 왔다. 북이 빚장을 풀고 문만 열면 그러한 지원은 얼마든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식량지원 문제는 죄우를 가리기 보다는 보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생명존중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기존의 대북교류 창구들이 하루빨리 열리며 순수한 동기에서 우리나라의 지원과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길 기원한다.

**“법난은 계속되고 있는가?”**

지난해 10·27법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에서 보상과 명예회복 등 핵심 사항을 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8년 전의 법난에 대한 역사적인 보상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또 하나의 법난을 야기하는 듯 한 인상이었다.

조계종 10·27법난에 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5월 22일 국방부를 방문. 김종천 차관에게 강하게 항의한 내용들을 보면 이미 특별법 제정 시기에 거론됐던 세부적인 사안들이다. 추진위는 10·27 관련 위원회에 불교계 인사 참여, 외문 해결을 위한 활동 보장, 역사관 건립, 추모단체 지원 등 활동사항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당시 피해를 입은 스님들의 명예회복에 대한 기능적 강화 등에 대해 강하게 요구했다.

추진위의 요구는 10·27법난이 새롭게 정의되고 정당하게 규정되어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 내용이 불성실하게 담기는 시행령이라면 으나 마나 한 것이다. 김종천 차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더 협의해 좋은 시행령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지만, 모법(母法)의 정신을 확실하게 구현할 시행령의 제정을 위해서는 불교계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27법난은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역사라는 점을 불교계와 정부 관련 기관이 함께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힘겨운 시험**

30대 중반의 그 부사관은 상당히 마르고 키도 작은 편이었다. 특이한 점은 그의 얼굴에 싱글벙글 시종일관 미소가 멈추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다. “군 생활이 힘들진 않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물론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제가 원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한다. 그에게는 오늘의 그를 만들어 준 연인이 있었다.

“사실 부사관 시험에 합격은 못할 뻔 했어요. 지금도 좀 애초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보다 훨씬 더 말랐었어요. 남자 몸무게가 48kg밖에 안 되었으니 상상이 되시겠죠? 체력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사관의 길을 택했다. 아니, 꼭 합격해야만 했다. 간부들이 처음 보고는 “할 수 있겠나? 건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하였다. “괜찮습니다!” 그는 열심히 했다. 그러나 역시 체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훈련과정이 너무 힘이 들었다. 숨이 차고 팔다리엔 힘이 빠지고, 키까지 작아 남보다 두 배로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도 들었다. 도저히 못 따라가 쓰러진 적도 있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 이를 악물고 하였다. 너무 열심히 그를 보고 간부들도 더 이상 뭐라 하지는 않았다.

이제 시험 패스의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완전 군장을 하고 00km를 뛰는 것이었다. 다른 동료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에게는 제일 두려운 일이었다. 우선 군장의 무게만으로도 자신의 체격에는 큰 부담이었다. 그런데 그 걸 지고 그 먼 길을 뛰어야한다니.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나 하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또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65) 격려는 정신적 산소**

서글퍼졌다. 그래도 해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정신차려 년 할 수 있어.**

드디어 출발, 햇볕은 왜 그렇게 뜨거운지 몇분이 흘렀는데 벌써 땀으로 범벅이 되고 있었다. 그는 서서히 호흡이 가빠오기 시작했다. 어깨가 무거워졌다. 짐이 온몸을 누르는 것 같았다. 또 10m, 10m. 힘이 빠지면서 다리도 조금씩 후들거렸다. 이제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심장은 터질 듯이 숨이 찼다. 그렇게 몇 분을 더 가자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래,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리다 죽을 것 같았다. “그래, 포기하자” 하고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순간이었다.

“야, 정신 똑바로 못 차려! 년 할 수 있어!” 하는 소리가 벼락처럼 귀를 때렸다. 깜짝 놀라보니

어느 새 훈련담당인 여성 중위가 옆에서 같이 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위는 엄한 표정으로 “너 그러고도 남자냐! 이걸 못 해! 할 수 있어!” 하고 소리 질렀다. 갑자기 얼어붙는 것처럼 놀란 그는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뛰었다. 그 여성중위도 계속 옆에서 뛰고 있었다. 잠시 후 또 온 몸이 탈진할 것 같았다. 다리가 휘청하였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순간 또다시 “정신 차려! 힘 내!” 하고 중위가 소리를 질렀다. 이번에는 그 말에 따뜻함이 실려 왔다. “절대 포기하지 마.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중위의 말이 무슨 광선 에너지처럼 그의 가슴에 박혔다. 갑자기 온 몸에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 ‘야, 이 분이 나를 도와주려고 일부러 옆에서 뛰어주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자 감사한 마음이 물밀듯 올라왔다. 중위는 계속 옆에서 그를 격려했다. “힘 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다. 힘들어도 하는 거

야! 여자인 나도 하는데 네가 못해!” 중위는 끝까지 그의 옆에 바짝 붙어 뛰어 주었다.

**정신적 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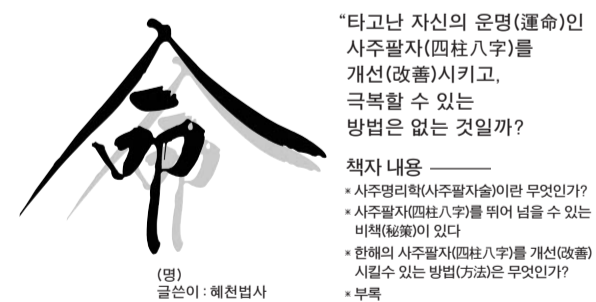
그는 어느 새 힘든 것을 잊고 있었다. 몸은 분명히 천근만근 무거운데 마음은 따뜻한 힘이 감싸고 있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보잘 것 없는 나를 위해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함께 뛰며 나를 믿어준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여자간부가 말입니다.” 그는 몇 번이나 쓰러질 뻔 하다 정신을 차려 결국 완주해 낼 수 있었다. 중위에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해냈어요” 하고 말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제 부사관이 된 그는 힘없는 자기를 믿어준, 옆에서 같이 뛰며 중위를 본받아 자기도 병사들에게 믿음과 격려, 도움을 열심히 주고 있다고 했다. 그 중위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말고 다른 병사들에게 잘 해줘. 너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말이야” 하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에 그토록 미소가 가득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신이 힘들 때 받은 격려의 힘을 이제 다른 병사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서 진실한 마음을 느껴 본 사람의 밝은 빛이 총만해 보였다. “사랑보다 깊은 것이 자비”라는 법어가 떠올랐다.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믿음과 격려를 받는다면 맑은 산소를 마시는 것과 같이 생명 에너지가 넘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오늘 자비의 마음으로 정신적 산소를 공급해 보면 어떨까 싶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천축,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실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르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계의 상경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케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생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한국불교대학교 경복동부교구 개원 및 총무원장 혜봉스님 취임법회**

**감사의 인사 말씀**

귀의삼보하오며 사부대중의 법체 청안하심을 늘 기원드립니다. 한국불교대학교 경복동부교구는 지난 5월 20일 개원법회 및 총무원장 혜봉스님 취임법회를 여법하게 봉행함과 아울러 신임 집행부를 구성하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고 임직하시어 축하의 말씀을 주신 대덕스님들과, 축전 화한 화분으로 축하해 주신 중도 및 내외빈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로운 포부와 각오로 출발하는 저희 경복동부교구 중무원은 중도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수행과 포교에 있어 일취월장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의당 직접 찾아 뵈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마땅한 일이나, 우선 지면으로 가름하오니 널리 헤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무원장	혜봉(원동사)	원로위원	법달(원각사)
총무국장	지공(보현사)	총회의장	해주(법주사)
교무국장	진학(연곡사)	총회의장	원경(신계사)
사회국장	선덕(옥수사)	총회의원	승운(옥정사)
규정국장	대원(일타암)		성범(지장암)
교임국장	지원(대성사)		도일(금선사)
서무과장	이상희	사정위원장	총례(영명사)
		교육위원장	범은(무량사)
		포교위원장	대원(삼성암)

**중도일동합장**

불기 2552(2008)년 5월 21일

**한국불교대학교 경복동부중무원**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278-9 2층 TEL 054)762-5888 FAX 054)762-5889